



2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목표"
도민 방역수칙 생활화 문화 조성

전주매일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음 8월 29일) 제26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환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동물원 찾은 시민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전주시 다중시설의 이용 제한이 풀린 14일 전주동물원을 찾은 시민들로 장내가 활기를 띠고 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道, 내실화·실효성 높인다

최근 트렌드 반영·거버넌스 추진체제로 진화

전북도는 문재인 대통령 전북지역 1호 사업이며 도정 핵심 프로젝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가 핵심사업 조정과 최근 트렌드 반영 및 거버넌스 추진체제로 진화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은 식품, 종자, 미생물, ICT농기계, 첨단농업 등 도내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농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도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는 핵심정책이다.

지금까지의 기존 핵심사업을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 새롭게 수산분야를 추가하고 신규 발굴사업, 컨텐츠, 집후방 연관산업, 빅데이터·디지털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 조정했다.

주요 조정내용은 핵심사업을 12대 사업에서 15대 사업으로 조정했으며 국가정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 가능성이 줄어든 사업과 사업비는 과감하게 조정해 내실화 및 가능성을 대폭 높였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는 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종자클러스터 기반 구축, 미생물산업 활성화, 첨단농기계 혁신기반 구축, 스마트 첨단농업 활성화 등 5대 분야에 15대 핵심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9,9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약사업 12대 핵심과제는 순항해 그 중 6대 핵심과제가 국가사업으로 확정 추진중이고 나머지 6대 핵심과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도 선정됐다.

확정 추진 중에 있는 6대 핵심과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컨텐츠 확충 3건 487억원), 농식품원료 증계·공급센터(195억원), 유·용미생물은행(300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25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777억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140억원)이다.

여기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1,200억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2020년 8월), 간척지 농업연구동(400억원)은 농촌진흥청 사업계획에 반영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복합푸드랜드(1,500억원)는 기재부 단계에서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이 편성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종자분야는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과 종자기업 공동육종 종합공정 시설을 변화한 정부정책 여건에 맞게 K-Seed 혁신클러스터(297억원)로 조정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 중이다. 아울러 식물자원소재연구센터(200억원)도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2022년 국가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체제도 진화한다.

기존의 관 주도하의 타당성 검토 및 국책사업 발굴에서 5대분야 전문가 TF, 협의체, 총회 등의 과정을 통한 사업발굴, 보완·선정, 확정 추진체제로 변화한다.

전문가 TF는 식품, 종자, 미생물, ICT농기계, 첨단농업 등 5대분야 TF가 운영되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행정 등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핵심사업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농업인단체, 유관기관·단체 등이 확대돼 구성된 5대분야 협의체는 전문가 TF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논의, 사업계획 보완 및 최종안을 선정하며 총회는 5대분야가 참여하는 통합 회의로 분야별 협의체에서 선정된 최종안을 발표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5대 분야별 전문가 TF가 구성·운영 중으로 데이터, 디지털, 그린에너지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국책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5대 농생명클러스터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새만금 등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수도로 차질 없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특례시 반드시 지정돼야"

김승수 시장, 민주당 조찬회동서 당론 채택 요청
"국가포용성장·균형발전 마중물" 도정 한목소리

김승수 전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국가포용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14일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특례시 법안 관련 당론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연 조찬회동에 참석해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조찬회동에는 홍영표 참정옹지 방정부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한정에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 한병도 국회 법안소위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재영 행안부 차관, 전국시군구협의회 황명선 회장과 이동진 상임부회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광상욱 회장과 박승원 사무총장, 윤화섭 50만이상대 도시협의회장,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가포용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국가불균형의 원인으로 국가자원의 광역중심 배분이라는 구조적인 부분을 언급했다.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공모 등 전라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편제 사업 등 주요 자원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다보니 광역시가 없는 권역과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예산규모를 보면 강원도(20조원), 전북도(19조), 충청도(15조) 등 광역시가 없는 권역은 충남권(32조), 전남권(34조), 경북권(46조), 경남권(56조) 등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1/2~1/3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전라사업의 경우 강원, 전북, 충북은 모두 3개에 그친 반면에 충남권(7개), 전남권(6개), 경북권(6개), 경남권(10개) 등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0개에 달한다.

혁신도시 역시 강원, 전북, 충북은 1개, 충남권(3개), 전남권(1개), 경북권(2개), 경남권(3개) 등 차이가 크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승수 전주시장.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규모 차이는 200억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도 이런 광역중심 배분 때문이라는 게 전주시 판단이다.

김 시장은 이런 광역중심 배분으로 누적된 국가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

고 강조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특례시를 지정하면 국가포용성장 및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주변 시·군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주변 시·군이 동반 성장한 사례를 들면서 특례시 지정이 주변 시·군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등은 한 목소리를 냈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7만 명이 서명운동으로 힘을 보탰다.

전주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북의 하나 된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민주당의 특례시 지정 당론 결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전주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지역내후의 골레를 벗고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정치권 및 전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상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